

## 기독교와 한국의 근대화

대단히 막연한 제목이긴 하지만 분명히 문제성은 가지고 있다. 도시 한국의 근대화라는 문제가 요즘 갑작스러이 떠올기 시작했지만 아직 역사적, 사회적인 견지에서 이 문제를 체계있게 제시한 사람이 없으며, 하물며 이 나라에 전래된 프로테스탄티즘이 한국의 근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현재까지 종교학이나 사회학에서 다루어 오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이 거창한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는 일은 나에게는 분에 넘치는 일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근대화의 초기 즉 개화 시대에 있어서 당시의 프로테스탄티즘(나는 여기서 교회 또는 기독교 보다도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말하고자 한다)의 지도자들이 헌신적으로 수행한 육영, 의료, 한글 보급 운동, 농촌 계몽 사업 등은 문화적인 의의를 지녀 왔고, 현재도 어떤 형태로든지 문화적인 사업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점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문화 현상으로서의 사업보다도 더 근본적인 한국 프로테스탄티즘이 지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딜레마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어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점은 현재 우리 나라 안에 정부가 소관하는 조직이나 기업체를 제외하고는 소위 인간적인 베이스로 조직된 매스 미디어 그리고 방대한 원호 교육, 의료 사업을 하는 단체 가운데 프로테스탄트를 능가할 단체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이목을 끌만한 두드러진 선전을 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숨은 봉사를 각 분야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음을 뜻있는 사람들은 인식하여 주리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 사업이 다소라도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하는 점이 있다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처럼 처참하고도 비대하여진 우리 나라의 프로테스탄티즘은 분명히 문화 의식을 정리함에 있어서 공백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한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이 당면한 딜레마의 성격도 나타난다.

프로테스탄티즘이 1880년대라는 역사적인 정황 속에 한국에 전래될 때에 이에 따르는 문화 차입적인 요소(culture-borrowing factors)가 역사적인 약속에서 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역사간에서 생성하는 이러한 요소가 자각적인 비약을 매개로 하여 더 고차적인 차원에 지양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요소는 자연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근대화와 한국 프로테스탄트와의 어떤 유기적인 상관성을 논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찌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첫째로는 한국적인 문화 의식 구조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적인 에토스에 대한 사회, 문화학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는 한국적인 문화 의식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적인 해석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것일까? 이 두 가지 기본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없이, 양자의 유기적인 상관 관계를 내용적으로 규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용적인 연구는 둘째로 하더라도 형식적인 면에서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에 전래된 프로테스탄티즘과 한국 사회와의 상호 작용은 사회 문화적인 공존성(compatibility)의 원리 형성에 따라서 발전되었다는 것, 그리고 종교는 독자적이면서도 동시에 의존적인 변수라는 것이다. 종교는 사회 문화에 대한 영향을 독자적으로 끼치면서도 동시에 그 특정한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는 의존적인 것이다. 종교의 문화 차입에 있어서도, 그 사회에 가장 알맞는 부분만을 골라서 받아 들이게 된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우리 나라에 전래된 프로테스탄티즘이 한국이라는 문화 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찰함에 있어서 한국의 문화 사회가 이 프로테스탄티즘에게 준 영향을 묵살하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둘 사이의 상호 작용을 아무런 편견 없이 분석함으로써만 현재의 딜레마에서 빠져 나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첨부하여 지적하려고 하는 점은 우리 나라의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자기를 닫아 막은 세계 속에서 안주한다거나 윤리적인 생활에서 <나는 그대보다 더 거룩하다>(holier than thou)는 태도를 유지한다거나 또는 기독교적인 문화 전통을 우월한 것이라는 자부에만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한낱 시니컬한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이 현재와 같은 문화적인 도전에 지탱할 수 있게 되려면 과감한 자기 반성과 명찰로 겸허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

미국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그의 저서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Scribners 1952 p. 151) 가운데서 역사의 역설적인 성격을 논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역사의 객관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고작 해야 로삭하 심리 테스트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이 로삭하 테스트 카드에 나타난 괴상한 형태는 심리 분석을 당하는 사람의 본래적인 지각 작용에 따라서 자기 코끼리로 보이는 수도 있고, 개구리로 보이는 수도 있다. 결국 이 테스트 카드에 그려진 반점이나 얼룩 자체보다 그를 지각하고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성격 형태를 규정짓는다. 역사적인 사실과 발전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로삭하 테스트와 같이,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자기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 문화적으로 서로 작용하는데 있어서 종교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묘사할 수는 있다. 이제 그러한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해 보고자 한다.

(1) 대한 제국 시대의 한국의 정치적 정황과 아울러 일본의 침략적인 야망이 노골화되어짐에 따라서 불안과 긴장을 낳은 무한 압정에 시달린 민중은 타계주의적이며 현실 부정의 경향에 흐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성에 부합하는 종교적 신앙에 대해서는 예민한 수용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기에 전래된 프로테스탄티즘의 한 형태였던 근본주의적 신앙에 접함으로써 민중은 유티버니즘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직감하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생각하면 삼일운동의 독립 선언문에는 분명히 이러한 유티버니즘의 정신에의 호소가 나타나 있다. 한국민의 독립을 누구에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유니버설)에 입각하여 응당 한국

은 독립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선언은 일본 제국에 대한 선언이라기 보다 한국민 자신들에게 대한 선언, 이를테면 독립을 위한 자기에의 선언이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이것은 확실히 어떠한 형식의 대외적인 항의문 보다 더 철저하며 근본적인 자기 혁신을 내세운 선언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부정을 통한 자기 긍정을 하는 기독교 신앙의 변증법적 성격과 비슷한 점을 엿볼 수가 있다.

(2) 한국에 처음 전래된 프로테스탄티즘 중에도 주로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가 한국 선교에 적극적이었다. 그 당시 미국 교회에는 주립교회(State Church)로부터 다원적인 교회로 분열되는 시초적인 과정에 있었으며 그 신앙의 특징은 극히 보수 경건주의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당시 유럽에서부터 물밀듯 밀려 들어 오는 근대 일본주의적인 모더니즘에 반발하는 미국적인 경건주의(이것을 근본주의—Fundamentalism—이라고 부른다)라고 할 수 있다. 이 근본주의의 근본적인 다섯 가지 교리는 다음과 같다.

1. 성서는 절대로 잘못된 기록이 없다.
2. 처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3. 예수가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것.
4. 세계의 죄악을 위해 예수가 속죄하였다는 것.
5. 예수가 육신으로 재림한다는 것.

이러한 교리는 주로 미국에 있어서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지역(Deep South)에서 번성하였다. 이 다섯 가지 근본 테마를 따져 보면 유불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자 혹수주의와 이 근본주의로 말미암아 전래된 그리스도교의 유대교적인 요소 즉 구약적인 율법주

의와는 유사한 점이 있다. 이를테면 유대교의 메시아니즘은 원시 교회 시대의 옛센류의 윤리관(극히 금욕주의적인 것이다)으로 발전되었고, 이것이 19세기의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반인본주의적인 기독교 신앙(근본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고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한국에 전래된 프로테스탄티즘은 극단의 보수주의 신앙이었으며 앞에 쓴 바 한국의 전통적인 보수 사상과는 서로 부합되는 점이 있었다. 흔히 한국에 전래된 프로테스탄티즘은 한국 사람의 고유의 풍속과 상반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한국적인 의식에 보다 더 친근성을 주는 점도 많았다는 점을 지금까지 등한히 여겼다는 것도 사실이다.

(3) 이런 점에서 고찰한다면 이웃인 일본에 전래된 기독교는 주로 소수의 상부 단층의 의식 분자들에게 수용되었고 그것이 일본의 전통적인 의식 구조와의 양립성(Compatibility)과 전파(Diffusion)를 이루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르러 왔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이러한 보수 신앙의 메시지가 한국에 전래되어서는 상부 단층보다 하부 단층에서 더 생명적인 힘을 발휘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있는 대조이다. 역사가나 종교 사회학자들이라면 이러한 현상에 서로 다른 원인을 들어서 설명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본주의에서 말하는 육신 재림이나, 처녀 탄생은 우리 나라에 고대부터 내려온 아미미즘적인 신앙에는 대단히 매혹적인 교리였음에 틀림이 없다. 근본주의의 기본 교리와 한국적인 고유의 의식 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양립성과 전파의 작용이 앞에 쓴 바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정세 아래에서 큰 힘을 나타냈던 것이다.

(4) 반 세기 이상 한국에 전래된 반인본주의적인 보수 기독교 신

양은 그것이 엄격한 칼빈주의를 앵글로색슨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조금도 프로테스탄티즘의 새로운 해석을 감행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앵글로색슨적인 의미에서 해석되어진 칼빈주의가 엄격한 계율, 금욕, 근면 등을 낳았고 사회 개량을 부르짖는 선각자와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들의 모럴 에너지가 되었으며 그것대로의 현실적인 타당성을 지녔던 것이다. 즉 저들은 프로테스탄티즘 가운데서 일본 제국주의의 압정에 대한 현실적인 <프로테스트>를 할 거점을 찾았다. 그러나 반면에 활달한 퍼스펙티브를 가질만한 인문 교육 및 사유를 용납하기에는 너무나도 편협하였다고 할 것이다. 교육, 의료 등 여러 부문에서 개척적인 사업을 하였다고 하나 근본적으로는 반지성주의를 표방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반지성을 반인본주의, 반인본주의는 그대로가 신본주의 그리고 이것이야 말로 인간의 구극적인 관심사여야만 한다는 공식으로 대중에게 전하여 내려 왔다.

한국에 전래된 프로테스탄티즘이 상술한 정황 속에서 근세에서 처음 보는 성공적인 선교를 거두었으나 이에 따라서 매스·무브먼트의 뒷받침이 될 지성적인 사고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각가지 혼란을 자아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현실 부정과 현실 참여 사이에 메꿀 수 없는 틈을 가진 채 방향을 찾는 공백기를 겪고 있음이 분명하다. 현재 거창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의 각기 활동 분야에서 책임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흔히 듣는 말은 한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이 막다른 골목에 다달아 있으며 만일 여기서 어떠한 전환점을 찾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면 비대한 조직과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서도 우리 나라의

프로테스탄티즘은 별 수 없이 현실에서 탈락하여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이러한 곤란과 당황함 속에서도 프로테스탄트 교회 가운데의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현재 분열될대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떠한 기능적인 통일과 조화를 끈덕지게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와 행동의 노력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한국의 근대화에 있어서의 한국 프로테스탄티즘의 위치와 상호 작용의 성격을 앞으로 잡아낼 수 있게 되리라고 믿는다.

여기서 결론으로 나는 다음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한국적인 문화 의식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고서도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을 과연 철저하게 논할 수가 있는가? 한국의 근대화는 어떠한 가치 의식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서구 문화를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것으로 진정한 한국 근대화의 이념으로 삼을 것인가?

2. 이 문제는 더 한층 근본적인 물음을 내포하고 있다. 즉 보편과 개별성, 초월과 내재, 주관과 객관에 대한 서구적인 사고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양의 <무의 사상>은 서구적인 무의 사상과 어떻게 다른가? 요새 서구의 논리적 실증주의처럼 언어의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에 대답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는 인문 과학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으로 대답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한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은 현재로서는 급속하게 변천하며 근대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 어떠한 적극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 공업화에 따르는 노동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어떠

한 종교적인 가치관을 주장할 것인가? 한국의 프로테스탄티즘에는 반단층적인 가치 개념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의 프로테스탄티즘 자체가 점차로, 중류 계급적인 경향, 소시민적인 사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변해 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아무런 반단층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데 하나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건전한 중류 계급 의식을 형성하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면 모르거나와 만일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프로테스탄트는 빛을 잃은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롱든 프로테스트(protest)에서부터 영합(conform)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 한국 프로테스탄티즘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단정해도 좋을 것이다.

4. 끝으로 근대화와 함께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초자연주의에 대한 회의와 멸시의 경향에 대해서 한국 프로테스탄티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세속적인 가치 판단을 거부하면서도 교회의 세속화를 부르짖는 최근의 한국 교회의 동향은 분명히 신앙적인 모험임에 틀림 없다. 왜냐하면 세속주의와 세속화의 구별에 대한 뚜렷한 개념적인 분별이 없이 이러한 운동을 전개한다는 일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상 나는 한국의 근대화나 또한 이에 대한 기독교적인 영향을 말하는 일보다도 양자에 관한 문제성의 바탕을 먼저 규명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종교학이나 사회학자들의 서로 편견 없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